

■ 특집 ■

페데리코 2세와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

임 병 철

I. 페데리코 2세, 신화와 역사의 경계

1245년 초여름 중세 유럽 사회는 황제권과 교황권의 충돌이 낳은 또 한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두 해 전 여러 곡절 끝에 교황좌에 오른 인노첸시오 4세(Innocent IV)가 프랑스의 리옹에서 새로운 공의회를 개최해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이자 시칠리아의 왕 페데리코 2세(Federico II)에게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1077년의 카노사 사건 이후 교황과 황제 사이의 대립은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중세 유럽의 정치 세계를 요동치게 만든 중요한 상수였다. 그리고 바로 그 연장선 위에서 13세기 초반의 이탈리아는 페데리코와 교황 그레고리오 9세(Gregory IX) 사이에서 벌어진 치열한 권력 다툼의 경연장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250년 페데리코의 사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그와 교회의 대립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교회의 편에서 상상할 수 있는 한 리옹공의회는 어쩌면 그 마지막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다양한 공의회 의제 가운데 이단과 위증 그리고 신성모독의 혐의로 황제를 파문하고 폐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사 종교라는 외피로 포장되었다고 해도, 리옹공의회는 이탈

리아 반도의 권력지형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 투쟁의 산물 그 이상도 또 이하도 아니었다. 아무튼 몇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날선 공방을 나누던 양진영의 설전 끝에 결국 인노첸시오는 페데리코의 파문과 폐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공의회는 공식 교령에 따르면 페데리코는 분명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고, 여러 차원에서 충분히 “이단의 혐의”를 받을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공의회는 페데리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난을 쏟아 부었다.

그[페데리코 2세]는 사라센인들과 끈직한 친교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그들에게 특사와 선물을 보낸 바 있고, 또 영예와 환호의 표시로 그와 유사한 것들을 그들로부터 받고 있다. 그는 그들의 의식을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그들로부터 하루하루의 봉사를 받는다.……기독교 군주에게 걸맞는 행동과 관행을 거부하고 구원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을 게을리 하면서, 그는 신성한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그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다.……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뛰어들고 있으며, 성직자나 교회의 다른 인사들을 끝없이 괴롭히면서 그들을 짓밟고 있다. 또한 우리는 그에게서 교회, 수도원, 자선시설 혹은 그 밖의 다른 신성한 공간을 세웠다는 사실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점들이야말로 그에게 이단의 혐의를 부과할 수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¹⁾

하지만 페데리코에게는 이 같은 교회의 날선 공격이 그리 낯선 경험도 또 충격적인 일도 아니었다. 공의회는 회기 동안 대리인의 입을 빌어 그가 표명한 강경한 입장과 파문 및 폐위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된 세찬 저항이 예증하듯이, 이번 경우에도 교회의 이 가공할만한 무기는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 어쩌면 그것은 1227년부터 마치의레처럼 네 차례나 무의미하게 반복된 ‘진부한’ 파문 드라마의 최종회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자칫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 페데리

1) “First Council of Lyons—1245 A.D.” in Papal Encyclicals Online, available from: <http://www.papalencyclicals.net/councils/ecum13.htm> accessed March 29 2019.

코를 향한 이 같은 교회의 비난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교회와의 대립 그리고 그 와중에 교황이 페데리코에게 원색적으로 덧칠한 적-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당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를 둘러싼 신화가 버려지고 이어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이 과문 선언에 나타나고 있는 페데리코의 반-기독교적 회의주의나 교회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 혹은 친-이슬람 정서가 19세기 이후의 역사가들로 하여금 그를 시대를 앞서간 ‘근대 군주’로 해석하도록 이끄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교를 수용한 관용의 군주로서 마치 그가 표상하는 듯한 반교회적인 태도가 정치질서의 세속성을 체현하고 현실주의 정치사상을 반영하는 징표로 간주되었던 것이다.²⁾ 만약 이를 염두에 둔다면, 당대의 기록이 전하고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종 회자되듯이, 페데리코는 ‘세계의 경이(*stupor mundi*)’ 그 자체였다.

하지만 최근의 한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이처럼 페데리코를 시대의 한계를 넘어선 “무슬림의 친구”이자 “문화 전이”의 상징적 인물로 단정 짓는 것은 18세기 이래의 계몽적 시각을 오늘날 우리의 염원에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오류가 될 수도 있다.³⁾ 물론 유대인과 무슬림교도를 포함하여 그의 궁정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인사들, 그와 무슬림 군주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그것과 뚜렷이 대조를 이루는 교황청과의 거둬들 반목 등을 고려하면, 이단자나 종교적 관용주의자 혹은 친-무슬림주의자로서의 페데리코의 일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단이나 이교의 문제에 관한 한, 페데리코가 중세 교회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충실히 계승했고 또 세속 군주로서 자신의 권력이

2) Cf. David Einstein, *Emperor Frederick II*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49); Ernest Kantorowicz, *Frederick the Second 1194-1250*, E. O. Lorimer, trans.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57).

3) Dorothea Weltecke, “Emperor Frederick II, ‘Sultan of Lucera,’ ‘Friend of the Muslims,’ Promoter of Cultural Transfer: Controversies and Suggestions”, Friedhelm Hoffmann, et al, eds., *Cultural Transfers in Dispute: Representations in Asia, Europe and the Arab World since the Middle Ages* (New York: Campus, 2011).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기독교적 믿음 역시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화 밖 역사 속의 페데리코는 말뜻 그대로의 “중세 황제”였다.⁴⁾

이 점에서,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페데리코의 도발적인 행적과 관념을 그가 살았던 시대의 맥락 속에서 해명하는 것이야말로 신화 속의 페데리코를 역사의 세계로 소환하는 올곧은 길일 것이다. 낯선 역사의 한 장면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지금의 우리로서는 중세 기독교 세계의 한 복판에서 기독교도들을 향해 칼과 창을 겨누던 무슬림교도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13세기 중반의 여러 기록은 이와 전혀 다른 낯선 세계를 보여준다. 당대의 한 기록은 1237년 8월 1만 명이 넘는 무슬림 병사들이 북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도시 라벤나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으며, 또 다른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같은 해 수천 명에 이르는 무슬림 궁수들이 만토바와 몬티키아리 등지에서 기독교도들과 격전을 치렀다고 한다. 두 해 뒤인 1239년에도 이 무슬림 병사들은 이탈리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때 그들은 밀라노와 브레시아 인들에 맞서 북이탈리아의 중심도시 밀라노를 함락하기 위한 혈전을 치렀고, 그 와중에 인근의 수많은 촌락이 파괴되었다.⁵⁾

더욱 당혹스러운 점은 기독교 영토에서 기독교도들에게 칼을 휘두른 이 무슬림교도들이 모두 기독교 국가의 신민들, 좀 더 정확히 말해 신성로마 제국 황제 페데리코의 병사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조부였던 적발왕 프리

4) Giuseppe Sciacca, “Sulla ‘Modernità’ di Federico II”, *Atti del convegno internazionale di studi federiciani* (Palermo: Renna, 1952), pp. 135-148; Francesco Giunta, “La Politica antiereticale di Federico II”, *Ibid.*, pp. 91-95. 한편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부터 칸토로비츠에 이르는 전통적인 해석을 비판하고 페데리코를 중세 군주의 전형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David Abulafia, *Frederick II: A Medieval Emperor*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8)를 보라.

5) Julie Anne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The Colony at Lucera* (Lanham: Lexington Books, 2003), pp. 102-104; Ian Almond, *Two Faiths, One Banner: When Muslims Marched with Christians across Europe's Battleground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2011), pp. 71-72.

드리히 1세(Frederick I)의 족적을 되밟아가면서 페데리코는 북이탈리아의 크고 작은 자치도시들과 벌인 잦은 전쟁으로 치세 후반부를 물들였고, 그로인해 이탈리아에서 황제권의 확대를 우려한 교황과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페데리코와 교황과의 대립을 종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 각기 정치권력을 확대하려던 제국과 교회의 세속적 이해가 충돌한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이 무슬림 군대가 ‘공인’된 기독교 군주였던 신성로마 황제의 병사들이었고 그의 명에 따라 기독교도들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점이다.

보편교회를 염원하던 기독교세계(Christendom)에서 그리고 다른 어느 때보다 이교와 이단에 대한 ‘십자군’ 정신이 팽배했던 13세기의 유럽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 나는 1220년대 초반 페데리코가 중부 이탈리아 아풀리아 지방의 작은 도시 루체라(Lucera)에 건설했던 무슬림 공동체를 이정표 삼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230년대 후반 북이탈리아를 유린했던 무슬림 병사들이 대개 그곳의 주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페데리코는 어떤 이유에서 이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했을까? 과연 그곳은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도와 이교 무슬림교도가 평화롭게 공존했던 예외적인 공간, 즉 조속한 종교적 관용의 실험장이었는가? 이제 이 질문들을 화두 삼아 ‘중세 황제’ 페데리코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II. 루체라 공동체, 종교적 관용의 실험장?

1220년대 초반 건설되기 시작해 1300년 함락될 때까지 약 80년 동안 기독교 세계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았던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하다. 기독교의 본향 로마에서 고작 16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루체라는 중부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페데리코는 1220년대 초반부터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곳에 시칠리아와 그 주변의 무슬림교도들을 이주시켜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했고, 그곳의 주민들은 이슬람 의식이나 관습, 도시의 행정 등과 관련해서도 무시 못 할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 내에 자리 잡은 무슬림 군대의 물리적 위협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교도와 무분별한 접촉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기독교 정신의 훼손이라는 문화적·종교적 맥락에서도 역시, 루체라는 그것을 건설했던 페데리코는 물론이고 그에 반응했던 당대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가늠자가 될 만하다.

흥미롭게도 루체라에 무슬림 공동체가 건설되던 초기, 그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는 오늘날의 선입견과 달리 당대인들에게는 이 공동체가 그리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러한 침묵을 깨고 교회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처음 무슬림교도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대략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1232년 말에 이르러서였다. 비교적 페데리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전임 교황 호노리오 3세(Honorius III)와 달리, 등극 초기부터 대립하며 이미 두 차례나 그를 파문한 바 있던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그해 12월 이 무슬림 공동체를 겨냥한 첫 포문을 열었던 것이다. 그레고리오는 페데리코의 허락—혹은 암묵적인 지원—아래 “지옥의 자식들”이 기독교도들의 세계를 “타락의 공간”으로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불경한 불신자의 손에 교회가 파괴된다면” 그것을 재건하고 기독교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독교 군주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페데리코에게 오만한 이교도들을 응징하라고 촉구했다.

오늘날 이에 대한 페데리코의 반응을 알려줄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듬해 그레고리오가 보낸 또 다른 편지와 그에 대한 페데리코의 답신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가늠해볼 수 있을 뿐이다. 페데리코에게 기독교 군주의 사명을 상기시켰던 이전 편지에서와는 달리, 1233년 8월의 서한에서 그레고리오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자

임하면서 루체라의 주민들에 대한 개종 운동에 직접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그의 계획은 교회의 전사로 부상하던 도미니코 수도사들을 루체라에 파견해 그곳의 무슬림교도들을 “회심과 갱생의 세레반”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그는 불신자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자신, 즉 교황의 주된 책무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그는 페데리코에게 이 개종 운동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같은 해 12월 페데리코가 쓴 답신은 교황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교황의 무슬림 개종 사업을 적극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만약 도미니코 수도사들이 아폴리아로 온다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의견상 살짝만 보이는 이 서신의 이면에 혹여 감추어져 있을 지도 모르는 페데리코의 진의를 정확히 포착할 수는 없다. 또한 이후 서너 해에 걸쳐 교황이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 문제를 재론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직접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또 그 때문인지 몰라도 그와 페데리코 사이의 대립이 한동안 가라앉는 듯했다는 점도 우리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1236년 2월 그레고리오가 페데리코에게 또 다른 서한을 보내면서,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와 관련된 교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막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편지에서 그레고리오는 신성한 교회들이 무슬림교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한탄하며, 페데리코에게 만약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파문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경고는 약 3년이 지난 후인 1239년 실행에 옮겨졌다. 그해 3월 그가, “주 그리스도에게 봉헌된 교회들이 왕국 내에서 파괴되고 불경스럽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페데리코 2세]를 파문하고 저주한다,”는 칙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⁶⁾

6) Cited from John Philip Lomax, “Frederick II, His Saracens, and the Papacy”, John Victor Tolan, ed., *Medieval Christian Perceptions of Islam* (New York: Routledge, 2000), pp. 180-188.

그런데 ‘교회의 파괴’라는 이 같은 주장은 1300년 루체라가 공식적으로 함락될 때까지 교회 측에서 주기적으로 제기한—하지만 실제로는 검증하기 어려운—일종의 정치적 수사나 다름없었다.⁷⁾ 페데리코 역시 이 점을 꿰뚫어본 듯하다. 1239년의 파문 이후 그가 자신에게 부과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교황이 지목한 교회의 파괴는 그저 오래된 건물들이 붕괴한 자연스러운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은 이러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교황이 착목했지만 감추고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데리코가 간파했던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의 파괴’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이 점은 그레고리오의 1236년 편지에서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독교도들과 공존하는 이교도들이 “불신의 독”으로 가톨릭 신앙을 더럽힐 수 있고, 또 그들과 교류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의 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오래된 두려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레고리오는 기독교 세계의 ‘오염’이라는 중세적 관념에 기초해 루체라에 만연한—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에서 야기될 수 있는—이교도들과의 교류나 교제가 기독교도들에게는 “더욱 잔인하고 한탄할만한 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데리코의 이에 대한 항변은 강경하면서도 일견 단순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가 그저 오래된 ‘가십’에 의존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해 버렸다.⁸⁾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독교 세계의 ‘오염’이라는 문제에 관한 한, 페데리코의 입장은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점은 1233년 교황이 권고했던 것처럼 자신이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를 기독교 세계로 만드는 사업에 전념해 왔다는 그의 주장에서 잘

7) 이와 관련하여, 테일러는 현재 남아 있는 물적 자료나 문헌기록을 통해서는 의도적인 교회의 파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p. 54-56.

8) Cited from Lomax, “Frederick II, His Saracens, and the Papacy”, pp. 175, 184-188.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루체라의 무슬림교도들 가운데 대략 3분의 1가량이 이미 개종했으며, 다른 이들도 곧 그 길을 따르게 될 터였다. 물론 이 이야기의 진위여부도 검증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교도들이 개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보다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⁹⁾ 게다가 이후 실제로 전개된 루체라의 상황 역시 충분한 개종이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암시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가 기독교 세계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페데리코가 이교도와의 교류로 인해 기독교 세계가 더럽혀질 것이라는 그레고리오의 비난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에 공감했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¹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236년 벽두에 쓴 그레고리오의 편지에서 점화되어 1239년 페데리코의 파문으로 폭발한 둘 사이의 대립에서, 분명 루체라의 무슬림 문제는 그 표면적인 쟁점이었다. 또한 이를 고려한다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양자 사이에 그리 커다란 이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은 새삼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둘 사이의 대결을 종교와 무관한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미 1235년부터 페데리코는 롬바르디아 지역에 대한 공략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교회와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황제의 북이탈리아 지배는 교황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나 다름없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그레고리오 또한 롬바르디아 자치도시들의 자유를 교황청 독립의 시금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¹¹⁾ 그렇다면 루체라의 무슬림을 둘러싼 둘 사이의 공방은, 황제권과 교황권의 대립이라는 해묵은 갈등이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이교도 문제라는 종교적 외피를 쓰고 분출된 것이었다고 해도 대과

9)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 51.

10) James Powell, "The Papacy and the Muslim Frontier", Idem. ed., *Muslims under Latine Rule, 1100-1300*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0), pp. 195-196; David Abulafia, "Ethnic Variety and Its Implications: Frederick II's Relations with Jews and Muslims", *Studies in the History of Art*, 44(1994), p. 218.

11) Abulafia, *Frederick II: A Medieval Emperor*, pp. 290-320.

는 아니다.

1236년 2월의 편지 이후 둘 사이에서 전개된 치열한 공방전은 이 점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만하다. 그 해 여름 페데리코가 북이탈리아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했을 때, 마치 그에 대한 저항의 표시처럼 그레고리오 오는 그에게 두 번째 파문의 경고장을 보냈다. 또한 1238년 여름 황제가 브레시아를 점령했을 때에도, 이내 교황은 그해 10월 또 다시 페데리코에게 파문의 경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레고리오가 종교적 제재—혹은 종교적 이슈의 쟁점화—라는 패를 쥐고 페데리코의 롬바르디아 공략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기실 오늘날의 통념과 달리 중세의 교황들에게는 세속 권력과의 힘겨루기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단과 십자군이라는 주제야말로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카드였을 것이다.¹²⁾

어쩌면 페데리코와의 투쟁의 한복판에서 그레고리오가 루체라의 무슬림 문제를 거론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루체라에 무슬림 공동체가 건설되던 초기,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무심했던 교회의 태도가 1230년대 중반 이후,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황제의 북이탈리아 공략이 시작되면서 뚜렷한 소음으로 변모했다는 점이 이를 웅변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페데리코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했을까? 달리 말해, 그는 왜 자신에게 이단이나 무슬림-애호가라는 오명을 가져다줄 수도 있는, 또 그래서 교황의 손에 자신을 공격할 이념적 무기를 쥐게 해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을까? 1220년대 초반 페데리코가 봉착했던 정치적 상황은 이 문제를 해명하는 가늠지만 소중한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이다.

12) Patrick Zutshi, "Petitioners, Popes, Proctors: The Development of Curial Institutions, c. 1150-1250", Giancarlo Andenna, ed., *Pensiero e sperimentazioni istituzionali nella 'Societas Christiana' (1046-1250)* (Milan: Vita e Pensiero, 2007), p. 290.

페데리코는 1198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Innocent III)와 어머니 콘스탄스(Constance) 사이의 정치적 타협으로 네 살의 어린 나이에 시칠리아의 왕위에 올랐고, 이후 1212년 이탈리아와 독일을 분리하려던 교황의 정치적 책략 아래 독일의 왕으로 선출되면서 한 동안 이탈리아를 떠나야만 했다. 그가 이탈리아로 귀환하여 신성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된 것은 성년이 훌쩍 지난 1220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의 앞에 왕국의 지배자로서 시칠리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시칠리아 지배는 시작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부재 기간 수많은 군소 세력들이 왕국 내에서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획득·행사하고 있었고, 이제 새로운 왕의 중앙집권적인 권력 행사에 거세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특히 시칠리아 무슬림교도들의 저항이 가장 완강했다. 그들은 자체적인 화폐를 주조하는 등 마치 이슬람 독립 국가의 건설을 꿈꾸는 듯한 체제전복적인 반란의 수준으로 맹렬하게 저항했다. 페데리코는 이 같은 무슬림교도의 도전을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라는 종교적 맥락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1222년 무슬림 반란의 근거지였던 시칠리아 서부의 이아토(Iato)에서 반란의 주동자 이븐 압바드(Ibn Abbad)에게 가한 페데리코의 보복은 이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약 8주의 공략 끝에 페데리코는 이아토를 함락하고 반역자를 생포했다. 그런데 이후 그가 보여준 모습은 ‘무슬림의 친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잔인한 폭군의 그것이었다. 페데리코는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이븐 압바드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종의 본보기로서 그의 옆구리에 박차를 찔러 놓고 육신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목숨이 붙어있던 이븐 압바드를 팔레르모로 압송한 후, 그곳에서 교수형에 처한 후 한 동안 시신을 성벽에 걸어놓았다고 한다.¹³⁾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1220년대 초반의 시칠리아는 중세 판 ‘인티파다

13)Abulafia, *Frederick II: A Medieval Emperor*, pp. 144-145.

(intifada)’의 격전장이었다.¹⁴⁾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이처럼 왕권 강화를 위해 페데리코가 시행했던 강력한 대-무슬림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들은 북아프리카의 무슬림교도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혹은 적어도 그들의 도움을 기대하면서—일종의 게릴라 전술로 페데리코에게 저항했고, 이에 따라 그에게는 북아프리카와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들을 단절시키는 것이 반란의 뿌리를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페데리코는 반란자들의 소개 및 이주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들을 고립시키려고 했다.¹⁵⁾ 이런 맥락에서 보면,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왕권확립을 위해 신민들을 소개한 치밀한 정치적 타산의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효과적인 반란의 제압 이외에도, 고립된 무슬림교도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득 역시 고려되었을 수도 있다. 20세기 초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에 처음으로 주목했던 이탈리아 학자 에지디(Pietro Egidì)는, 13세기 초의 루체라가 오랜 기간 버려진 땅에 가까웠다고 기록한 중세 피렌체의 연대기 작가 빌라니(G. Villani)의 기록에 주목하여 무슬림 공동체 건설 초기의 루체라가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이 살던 작은 촌락에 불과했으며, 페데리코가 바로 그러한 불모지에 새로운 주민을 정착시켜 경작지를 늘리고 왕실의 재원을 확대하려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⁶⁾ 물론 페데리코가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처음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입증해 줄만한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오늘날 발굴되고 있는 여러 고고학적 흔적들도 무슬림 공동체 건설 초기

14)Abulafia, “Ethnic Variety and Its Implications”, p. 216.

15)Christoph Maier, “Crusade and Rhetoric against the Muslim Colony of Lucera: Eudes of Châteauroux’s *Sermones de Rebellione Sarracenorum Lucherie in Apulia*”, *Journal of Medieval History*, 21(1995), p. 343.

16)Pietro Egidì, “La colonia saracena di Lucera e la sua distruzione”, *Archivio storico per le provincie napoletane*, 36(1911), pp. 604-605. Rollin S. Armour, *Islam, Christianity, and the West: A Troubled Histor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2002), p. 100 역시 페데리코가 불모의 땅을 개간하는 대가로 페데리코가 무슬림교도들에게 종교적 자유와 자치를 부여했다고 주장한다.

의 루체라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버려진 공간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듯하다.¹⁷⁾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페데리코가 경제적 수익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쉽지는 않다. 무엇보다 그가 이주시킨 무슬림교도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들이었고, 그들이 시칠리아의 농경 기술과 작물을 루체라를 비롯한 아폴리아 지방에 이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립된 무슬림교도들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페데리코에게도 그들을 유용한 징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페데리코가 왕국 내의 무슬림교도들을 왕실의 재산으로 간주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아무튼 얼마 지나지 않아 페데리코는 곧 루체라 무슬림 공동체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가 시작되고 나서 약 10년이 흐른 후인 1234년 그가 루체라를 왕국 내의 7개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⁸⁾

이와 함께 루체라는 남다른 전략적·지정학적 가치 역시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그곳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신성로마제국 황제로서의 통치권을 강화하려던 페데리코에게 의미 있는 요충지가 될 만했다. 다른 무엇보다 초대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식민도시로 건설되었다는 초기 루체라의 역사가 그에게 황제권의 강화를 위한 역사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다. 루체라와 그 주변 도시에 페데리코가 건설한 여러 성채들, 특히 루체라 인근의 포자에 궁을 건설하면서 그가 남긴 표석은 이를 잘 보여준다.¹⁹⁾ 더욱이 페데리코는 시칠리아 지역에서 이주시킨—좀 더 정확히 말해, 이주로 인해 시칠리아나 북아프리카의 무슬림교도들과 단절되면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오직 그에게만 의존해야 했던—무슬림교도의 군사적 역량

17)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p. 35-37.

18) David Abulafia, "The End of Muslim Sicily", James Powell ed., *Muslims under Latin Rule, 1100-1300*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0), p. 217.

19)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p. 39-40.

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었다. 페데리코는 물론이고 이후 루체라를 지배했던 호엔슈타우펜이나 앙주 가문의 군주들이 루체라의 궁수나 석공사수들을 주요한 군사자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물론 루체라에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하던 바로 그 초기 시점부터 페데리코가 북이탈리아 지배를 꿈꾸었는지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를 차지하려던 호엔슈타우펜 왕가의 전통적인 야망과 정책 그리고 그것을 좌절시키려던 교황청의 오래된 노력을 감안한다면, 비록 123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분명해졌다고 해도, 이미 초기부터 그가 아폴리아의 이 도시를 북이탈리아 공략의 전초기지로 생각했을 가능성 또한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1230년대 북이탈리아를 유린했던 황제의 병사들은 바로 루체라의 주민들이었다. 또한 13세기의 여러 연대기 작가들이 전하듯이 그들은 페데리코 이후에도 줄곧 호엔슈타우펜 왕가의 주력군으로 이탈리아 곳곳의 전장을 누볐다.²⁰⁾ 그렇다면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페데리코의 ‘정치적·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타산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 무슬림 공동체를 종교적 관용이나 문화적 포용의 산물로 간주하는 해석에 쉽사리 맞장구를 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III. 페데리코 2세, 친-이슬람주의자?

어쩌면 루체라에 무슬림 공동체가 건설되던 초기 교회가 그것에 별반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회의 시각에서 볼 때, 당시의 페데리코는 여전히 교황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달리 말해 정치적으로 그리 위협적으로 생각되지 않던 미약한 왕권의 소유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교회는 점차 페데리코의 정치적 행보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따라서 순수한 종교의 차원에서는 그리 차이가 없었던 그를 제

20) Piero Pieri, "I saraceni di Lucera nella storia militare medievale", *Archivio storico Pugliese*, 6(1953), pp. 94-101.

압하기 위해 이교의 문제를 정치 투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한 마디로 루체라의 무슬림교도들은 실제 종교의 문제에서는 거의 의견이 없었던 교황과 황제가 정치권력을 두고 경합하던 “장기관 위에 놓인 돌”에 지나지 않았다.²¹⁾ 이제 페데리코의 무슬림에 대한 시각을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이 점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자.

1245년의 마지막 파문이 있고 난 그 이듬해 11월, 페데리코는 교황과의 대결에서 항상 자신의 편에 섰던 맹우 에첼리노 다 로마노(Ezzelion da Romano)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 따르면, 루체라에 무슬림 공동체가 건설되기 시작한 후 근 20년 이상이 훌쩍 지난 1240년대 중반까지도 여전히 시칠리아 무슬림교도의 저항이 끈질기게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페데리코는 에첼리노에게 이제야 비로소 무슬림 반란의 뿌리가 뽑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된 반란군” 즉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들을 자신과는 “다른 믿음을 소유한” 이들로 지칭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오만”하게 도전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응징되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²²⁾ 그렇다면 이 편지는 기독교 세계의 한 복판에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했던 ‘관용의 군주’ 페데리코가 다른 한 편에서는 바로 그 이교도들과 지난한 전쟁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는 흔치 않은 증거이다.

한 해 전 사라센인들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파문된 페데리코에게 실제로 무슬림교도들은 언제나 정치관의 사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교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중세 유럽에서 무슬림교도들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기독교도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외적인 사례가 될 만하다. 하지만 그것이 곧 페데리코가 이교도와의 상생이나 공존을 꿈꾸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그레고리오와의 논전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루체라의 주민들이 언젠가 개종되어야 할 이교도라는 점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1231년 왕국의 통치 기반을 확립하

21)Lomax, “Frederick II, His Saracens, and the Papacy”, p. 188.

22)Cited from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p. 18-19.

기 위해 일명 “멜피(Melfi) 법전”으로 불리는 법령집 『아우구스투스의 서(Liber Augustalis)』를 선포하고 그 서문에서 명백히 밝혔듯이, 페데리코는 스스로를 기독교 세계의 군주로 자리매김했다. 그에 따르면, “신의 섭리의 실행자”로서 “믿음을 비방하는 이들에 의해 기독교의 어머니인 신성한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군주의 진정한 사명이었다.²³⁾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에서 페데리코는 스스로를 교회의 보호자로 자임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처럼 기독교 군주로 자처하는 것은 그에게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1215년 그는 유서 깊은 독일의 도시 아헨을 차지한 후, 그곳에서 독일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거행했다. 이미 1212년 교황과의 타협으로 왕위에 오른 그에게 이 대관식은 때늦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페데리코는 이를 자신의 왕권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았다. 무엇보다 아헨이 샤를마뉴 제국의 수도였고, 여전히 그곳에는 샤를마뉴의 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대관식을 자신을 샤를마뉴의 후계자로 공표하는 의도적인 정치 쇼의 일환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약 400여 년 전 샤를마뉴가 그랬듯이, 페데리코는 대관식이라는 의식을 통해 교회의 보호자이자 제국적 권위의 재건자로 스스로를 포장했다.²⁴⁾ 더욱이 스스로를 기독교 군주로 자리매김하는 이 ‘조숙한 셀프-패셔닝(self-fashioning)’의 현장에서 페데리코가 처음으로 십자군 원정을 천명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아무튼 만약 페데리코가 자신을 기독교 군주로 규정했다면, 그가 지배하는 시칠리아 왕국 역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마땅했다. 카푸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 특히 시칠리아 섬의 반란자들을 제압하면서 그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기독교 국가의 건설이라는 열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1221년 시칠리아에 첫발을 내딛고 메시나에서 선포한

23) *The Liber Augustalis or Constitution of Melfi Promulgated by the Emperor Frederick II for the Kingdom of Sicily in 1231*, James M. Powell, trans. (Syracuse: Syracuse Univ. Press, 1971), p. 4.

24) Abulafia, *Frederick II: A Medieval Emperor*, pp. 120-121.

법령은 이러한 그의 생각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이었다. 도박이나 농지 거리 등 개인의 품행을 교회법에 근거해 규제한 메시나 법령은 일견 사소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하지만, 왕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제정된 그와 같은 규정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차원에서 논의·제정되었다는 점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즉 그는 기독교 관념에 입각해 왕국의 통치 근간을 확립하려고 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이 법령에 유대인과 매춘부에 대한 분리 정책이 명시되었다는 점은 사뭇 주목할 만하다. 페데리코는 유대인과 매춘부들을 기독교 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아웃사이드”로 규정하고, 그들을 다수 기독교도들로부터 분리하려고 했다.²⁵⁾ 물론 사회적 소수자로서 시칠리아 왕국에서 더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이들은 가장 완강하게 왕권에 도전했던 무슬림교도였다. 그런데 십년 뒤 페데리코는 『아우구스투스의 서』에서 처음으로 유대인과 하나의 범주로 묶어 바로 그들의 권리와 신분 등을 법제화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유대인과 사라센인들에게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유대인과 사라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고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²⁶⁾는 것이었다. 의미심장하게도 단지 적대적인 이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과 무슬림교도에게 위협을 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유대인과 무슬림교도에 대한 보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를 불신앙의 징표로 간주하고 그것을 명분 삼아 페데리코를 공격했던 교회의 전략은 충분히 이해할 할 만하다.²⁷⁾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러한 페데리코의 입장은 전통적인 교회의 관념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기독교가 보편 질서로 자리 잡아가면서 13세기의 유럽 사회에서는 지배 집단인 다수 기독교도들

25) *Ibid.*, pp. 142-143.

26) *The Liber Augustalis*, p. 22.

27) David Abulafia, “Monarchs and Minorities in the Christian Western Mediterranean around 1300: Lucera and Its Analogues”, Scott Waugh and Peter Diehl, eds., *Christendom and Its Discontents: Exclusion, Persecution, and Rebellion, 1000~1500*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6), pp. 237-238.

과 소수의 이교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이 사회 질서의 구축을 위한 중요 현안으로 대두했다. 물론 개종을 통해 완전한 기독교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해도, 현실의 여러 장애는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개종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중세 사회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세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of Clairivoux)가 “만약 유대인처럼 사라센인들을 기독교의 지배에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기독교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랬듯이 그들의 개종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그와 같은 고려에 서였을 것이다.²⁸⁾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이나 무슬림교도 같은 소수 집단을 나름대로의 종교적 관행이나 법을 따르는 분리된 공동체로 수용하는 것이 중세 사회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종교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보편기독교 사회에서 이교도와의 공존이 가져올 위험성, 다시 말해 예상 가능한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신자들을 지킬 것인가라는 우려와 공포가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중세 기독교 사회가 철저한 분리 정책을 내세운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성지 회복과 보편교회의 개혁을 표방하며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1215년 개최한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다.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무슬림교도에 대한 분리정책을 교회의 확고한 입장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공의회의 교령 68조는 “일부 지역에서 복장의 차이가 유대교도와 무슬림교도들을 기독교도들과 구별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간혹 기독교도들이 유대교나 무슬림 여성들과 관계를 갖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과 사라센인들이 기독교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오류들이 발생하곤 한다,”는 우려 섞인 진단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곧 그에 대한 처방으로 인노첸시오 3세는 그와 같은 “파괴적인 뒤섞임”을 막기 위해 유대인과 무슬림교도들이 “모든 기독교 지역에서 그리고 언제나, 복장의 차이에 의

28) Cited from Benjzmin Z. Kedar, *Crusade and Mission: European Approaches toward the Muslim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p. 60.

해 다른 이들과 공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선포했다.²⁹⁾ 적어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이후, 오염의 가능성이라는 두려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무슬림교도 같은 이교도들에게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들을 다수 기독교 세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교회의 지배적인 정책이 되었다.³⁰⁾

의미심장하게도 메시나 법령에서 시작되어 『아우구스투스의 서』에서 집대성되는 페데리코의 소수자 정책이 이와 같은 라테라노 공의회의 교령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교회와 마찬가지로 페데리코는 유대인과 무슬림교도를 하나의 범주로 묶고 그들을 다수 기독교도들과 분리했다. 이에 따라 무슬림교도들은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불순한, 따라서 언젠가는 정화—즉 개종—되어야 할 주변인이 되었다. 이 점에 착목한다면, 페데리코가 자신의 영토 내에 이교 공동체를 건설했다는 점은 일견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가 1220년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단에 대한 전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교황에게 분명하게 약속했고 또 1215년의 대관식부터 1231년 『아우구스투스의 서』의 선포에 이르기까지 줄곧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 건설은 ‘아누스’ 페데리코의 일면을 보여주는 굴곡진 창으로 불릴만하다. 아이러니하게도 1220년대 시칠리아의 인티파다를 주도했던 주역이 이제는 마치 이슬람의 친구처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페데리코는 두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을까? 나는 지금까지 정치적·경제적, 즉 지극히 세속적인 차원에서 페데리코가 루체라에 무슬림 공동체를 건설했던 이유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적절

29)“Cannons of the Fourth Lateran Council (1215)”, in Baldwin, Marshall W., ed., *Christianity Through the Thirteenth Century* (New York: Harper & Row, 1970), p. 322. 이와 함께 공의회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 공식 공의회 소집 서간은 *ibid.*, p. 293 참조.

30)Powell, “The Papacy and the Muslim Frontier”, p. 188.

한 시점일 것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이교도 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내놓은 일련의 제도나 언명 등은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를 루체라에 이주시켰던 종교적인 목적 역시 페데리코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맥락 속에서 새롭게 추론해 보아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페데리코는 단일 지역에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들을 소개시킴으로써 그들을 북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무슬림교도들로부터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 뿐만이 아니었다. 자신들만의 공동체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 루체라의 무슬림교도들은 과거 시칠리아에서 그랬던 것과는 달리 주변의 기독교도들로부터도 철저히 분리되었다. 이후 시칠리아 왕국의 여러 문서에 종종 등장하듯이, 페데리코가 왕국 내의 무슬림교도들을 자신에게만 충성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는 “왕실의 재산(servi camere)”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적어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페데리코는 자신이 “건설하고자 했던 진정한 기독교 사회가 비-기독교적이고 비정통적인 집단과 그들의 관행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했고³¹⁾, 루체라는 이러한 그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다른 무슬림교도뿐만 아니라 주위의 기독교도들로부터도 철저히 단절된 말뚝 그대로의 고립된 공간이 되었다. 이는 무슬림공동체의 루체라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존이나 상생의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여러 정치적·상황적 요인과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겠지만, 그와 치열하게 대립했던 교황 그레고리오 9세나 인노첸시오 4세 가운데 그 누구도, 1230년대 이후 끊이지 않았던 페데리코와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그로인한 크고 작은 분쟁에도 불구하고, 루체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모두 페데리코 사후 루체라의 역사에 나타난 후일담과 같은 이야기였다.

1250년 겨울 페데리코가 병사했다. 그리고 이후 약 4년가량이 흐른 1254년 늦여름, 시칠리아의 왕위를 계승한 페데리코의 서자 만프레드

31)Maier, “Crusade and Rhetoric against the Muslim Colony of Lucera”, p. 345.

(Manfred)와 교황 사이에서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다.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그를 남부 이탈리아의 교황 대리인으로 지명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만프레드가 교황의 보좌관들을 살해하면서 이 달콤한 밀월은 짧은 꿈처럼 지나가버렸다. 이듬해 만프레드가 과문되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와 그를 따르는 루체라의 무슬림에 대한 십자군이 구성되기에 이르렀다.³²⁾ 이를 기화로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유럽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1300년까지 여러 차례 되풀이된 소위 ‘루체라 십자군’ 운동이 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어쩌면 이는 루체라와 관련되어 발생한 여러 교황과 페데리코 사이의 대립이 종교와 무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 증거일지도 모른다. 페데리코와 교황청 사이에서 오고간 여러 정치 서한과 논고를 분석한 한 연구자는 우리에게 그들의 논전을 유의해서 읽으라고 조언한 바 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페데리코 진영과 교황청은 모두 13세기의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동일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나갔으며, 이 점에서 페데리코가 정치적이었다면 그만큼 교황 그레고리오와 인노첸시오 역시 정치적이었다는 것이다.³³⁾ 그렇다면 루체라의 무슬림에 대한 교황청의 공격을 지난하고 다채로운 십자군 운동의 역사에서 단연 두드러진 ‘정치적 십자군’의 전형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루체라는 결코 관용의 실험장이 아니었고, 페데리코 또한 친-이슬람주의자나 종교적 관용주의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32)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p. 130-132.

33) Peter Herde, “Literary Activities of the Imperial and Papal Chanceries during the Struggle between Frederick II and the Papacy”, *Studies in the History of Art*, 44(1994), pp. 226-239.

IV. 에필로그

1245년의 리옹공의회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연대기 작가 살림베네(Salimbene)는 페데리코를 잔인함과 기벽에 가까울 정도의 호기심에 사로잡힌 인물로 특징지으며,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교황의 편에 섰던 수도사의 입장에서 어찌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였다. 적어도 그의 눈에 비친 페데리코는 “신에 관한 믿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페데리코가 자비와 품성을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는 때때로 대담했고, 또 읽고 쓰기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예외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살림베네는 “만약 그[페데리코]가 올바른 가톨릭교도였고 또 신과 그의 교회를 사랑했다면, 이 세상에서 그에 버금갈 황제는 거의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³⁴⁾ 원색에 가까운 비난의 홍수 속에 은밀히 꼬리를 들고 있는 이와 같은 양가적인 평가는 당대의 세계에서 페데리코가 어떻게 비추어졌는가를 암시한다.

물론, “그 역병과도 같은 왕[페데리코 2세]은 전 세계가 이 세 명의 사기꾼 즉 예수 그리스도, 모세 그리고 무함마드에 의해 기만당해 왔다”고 말하곤 했다고 비난했던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독설은, 그를 반-교회적 화신으로 자리 잡게 만든 대표적인 신화였다.³⁵⁾ 하지만 그것이 페데리코와 무슬림교도의 관계에 관한 모든 이야기일 수는 없다. 아마도 페데리코에 관한 소문은 당대 이슬람 세계에서도 끝없이 회자되었던 듯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약 100여년 뒤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남긴 유명한 이슬람 역사가 이븐할둔(Ibn khaldun)의 언급은 새삼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시칠리아의 폭군”—이븐할둔이 직접 페데리코를 거명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그를 지칭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에 의해 시칠리아의 무슬림교도들이 억압되고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또 수십

34)Salimbene, *From St. Francis to Dante*, G. G. Coulton, ed. and trans. (London: David Nutt, 1907), pp. 241-244, esp. 242.

35)Cited from James Powell, “Frederick II and the Church: A Revisionist View”, *Catholic Historical Review*, 48(1963), p. 489.

년이 지난 후에는 심지어 몰타 섬의 무슬림교도들 역시 루체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³⁶⁾

한 세기 후의 진술이 지닐 수밖에 없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븐할둔의 이야기는 페데리코와 그가 살던 시대에 관한 진실의 일면을 전해준다. 즉 오늘날까지 페데리코에 대한 신화만큼이나 강렬하게 지속되고 있는 ‘관용의 섬’이라는 중세 시칠리아의 이미지가 어찌면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분명 12세기 이전의 시칠리아는 아라비아 스타일의 문화와 유대 전통이 뒤섞인 문화의 용광로였다. 하지만 12세기 후반부터 끈질기게 거듭된 이슬람 공동체의 파괴는 다문화 사회였던 시칠리아를 단일 기독교 사회로 탈바꿈시켰다. 볼로냐나 밀라노 등 여러 이탈리아 본토의 주민들이 시칠리아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대략 1150년부터는 학살과 강제이주 그리고 개종을 통한 시칠리아 무슬림교도에 대한 종교·문화적 단일화 사업이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12세기 중반 이후의 시칠리아 역사는 점진적인 “라틴화” 과정이었다.³⁷⁾

어찌면 페데리코는 중세 시칠리아의 역사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며 운행되던 무슬림 파괴의 기관차를 몰던 마지막 운전자였다. 물론 그의 치세 기간 다른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와 접촉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아라비아어에 능통했던 페데리코 스스로도 여러 무슬림 학자들과 서신을 교환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궁정은 더 이상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소유한 지식인들이 공존하던 문화적 융합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왕국의 궁정에 영구적으로 상주하는 무슬림 지식인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인들도 손에 꼽을 만했다. 한 마디로 그의 궁정은 “전적으로 서양적”인 향취를 띄게 되었다.³⁸⁾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는 이와 같은 왕국의 “라틴화” 과정이 효율적인 국가행정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결합하여 탄생한 결과였다. 한 세기가 지난 뒤 이븐할둔은 바로 이 점을 회고적으로 기

36) Taylor, *Muslims in Medieval Italy*, p. 16, 77.

37) Abulafia, “The End of Muslim Sicily”, pp. 103-125.

38) *Ibid.*, pp. 125-127.

술했다. 그에게는 지중해 세계 한복판의 외로운 몰타마저 이제 그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였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배후에는 “시칠리아의 폭군”이 있었다.

이제 마지막 언급이 불가피해 보인다. 때론 이슬람의 관습을 이용해 신민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의 방식을 차용해 교역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자유로운 도시민들을 이단으로 몰아 박해하는 등, 페데리코는 역설적인 인물이었다. 또 이 점에서 누군가는 그를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목적에 따라 활용할 줄 알았던 소위 ‘르네상스 군주’의 원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³⁹⁾ 하지만 이 조속한 외면의 내부에는 중세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기독교 보편세계가 적대적인 이교 이슬람 세계와 마주한 최전선 접경 지역의 군주로서, 그는 정통적인 기독교 관념 속에서 그 소수자 문제들을 고민하고 처리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점에서 그의 혼란—혹은 야누스적 측면—은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라틴·기독교 사회로 변화하던 13세기의 시칠리아 더 나아가 유럽 사회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그러진 초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에서 관용은 낮선 것이었다.

한국고원대학교 제2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limbch@knue.ac.kr

주제어(Key words):

페데리코 2세(Federico II), 무슬림(Muslim), 기독교(Christianity), 루체라(Lucera), 관용(Tolerance)

(투고일: 2019. 10 .05 , 심사일: 2019. 11. 07 , 게재확정일: 2019. 11. 07)

39)Jacob Burckhardt,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S. G. C. Middlemore, trans. (New York: Penguin Books, 1990), pp. 20-21.

<국문 초록>

페데리코 2세와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

임 병 철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페데리코 2세는 신화의 수수께끼에 둘러싸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제국의 황제이자 시칠리아 왕으로서 그가 보여준 낮은 행적은, 그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를 종교적 관용주의자나 친-무슬림주의자로 해석하도록 이끌고 있다. 본고는 1220년대 초반 그가 아폴리아 지방의 작은 도시 루체라에 건설했던 무슬림 공동체에 주목하면서 이와 같은 신화 속의 페데리코를 역사의 장으로 옮겨오려는 시도이다. 특히 그와 교황 그레고리오 9세 사이에서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와 관련되어 전개된 논쟁을 제 각기 권력을 확대하려던 교황과 황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로 해석하면서, 본고는 루체라의 무슬림 공동체가 황제의 통치권 강화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에서 건설되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교황과 황제 사이에 커다란 이견이 없었으며, 오히려 페데리코가 1215년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개진된 교회의 이교도 정책을 충실히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를 고려한다면, 페데리코는 결코 반-기독교주의 회의주의자가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루체라 역시 종교적 관용의 공간이 아니었다.

<Abstract>

Federico II and the Muslim Community of Lucera

Lim, Byungchul

Federico II, the emperor of the Holy Roman Empire,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 Middle Ages who was shrouded in enigmas. In particular, his unfamiliar walk of life as an Emperor as well as a king of the Kingdom of Sicily has led one to regard him as a religious tolerationist or even an Islamophile from his time onwards. By focusing on the Muslim community which he established at Lucera, a small city in the region of Apulia, from the early 1220s to the middle of 1240, the present study attempts at reinterpreting such a mythical figures as Federico in a historical terrain.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dispute between him and the Pope Gregory IX in a dimension of the secular clash for consolidating the political power in their own ways, and contends that the Muslim community of Lucera was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sovereign power of the emperor. In addition, by maintaining that there was no conspicuous difference between him and the Pope at least with regard to the religious views, this study puts much emphasis on the fact that, as far as the pagan were concerned, Federico faithfully followed the policy of the Church which was stated during the Council of Lateran in 1215. Consequently, Federico was not an anti-Christian sceptic, and in the same manner Lucera was not the a place of tolerance at all.

참 고 문 헌

1. 자료

The Liber Augustalis or Constitution of Melfi Promulgated by the Emperor Frederick II for the Kingdom of Sicily in 1231, James M. Powell, trans. (Syracuse: Syracuse Univ. Press, 1971).

Baldwin, Marshall W. ed., *Christianity through the Thirteenth Century* (New York: Harper & Row, 1970).

Salimbene, *From St. Francis to Dante*, G. G. Coulton, trans. (London: David Nutt, 1907).

“First Council of Lyons—1245 A.D.” in Papal Encyclicals Online, available from: <http://www.papalencyclicals.net/councils/ecum13.htm> accessed March 29 2019.

2. 단행본

Abulafia, David, *Frederick II: A Medieval Emperor*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8).

Almond, Ian, *Two Faiths, One Banner: When Muslims Marched with Christians across Europe's Battleground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2011).

Armour, Rollin S., *Islam, Christianity, and the West: A Troubled History* (New York: Orbis Books, 2002).

Burckhardt, Jacob, *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 S. G. C. Middlemore, trans. (New York: Penguin Books, 1990).

Einstein, David, *Emperor Frederick II*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49).

Kantorowicz, Ernest, *Frederick the Second 1194-1250*, E. O. Lorimer, trans.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57).

Kedar, Benjamin Z., *Crusade and Mission: European Approaches toward the Muslim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Taylor, Julie Anne, *Muslims in Medieval Italy: The Colony at Lucera* (Lanham: Lexington Books, 2003).

3. 논문

Abulafia, David, “Monarchs and Minorities in the Christian Western Mediterranean around 1300: Lucera and Its Analogues”, Scott Waugh and Peter Diehl, eds., *Christendom and Its Discontents: Exclusion, Persecution, and Rebellion, 1000~1500*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6).

_____, “Ethnic Variety and Its Implications: Frederick II’s Relations with Jews and Muslims”, *Studies in the History of Art*, 44(1994).

_____, “The End of Muslim Sicily”, Powell, James, ed., *Muslims under Latine Rule, 1100-1300*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0).

Egidi, Pietro, “La colonia saracena di Lucera e la sua distruzione”, *Archivio storico per le provincie napoletane*, 36(1911).

Giunta, Francesco, “La Politica antiereticale di Federico II”, *Atti del convegno internazionale di studi federiciani* (Palermo: Renna, 1952).

Herde, Peter, “Literary Activities of the Imperial and Papal Chanceries during the Struggle between Frederick II and the Papacy”, *Studies in the History of Art*, 44(1994).

- Lomax, John Philip, “Frederick II, His Saracens, and the Papacy”, John Victor Tolan, ed., *Medieval Christian Perceptions of Islam* (New York: Routledge, 2000).
- Maier, Christoph, “Crusade and Rhetoric against the Muslim Colony of Lucera: Eudes of Châteauroux’s *Sermones de Rebellionem Sarracenorum Lucherie in Apulia*”, *Journal of Medieval History*, 21(1995).
- Pieri, Piero, “I saraceni di Lucera nella storia militare medievale”, *Archivio storico Pugliese*, 6(1953).
- Powell, James, “The Papacy and the Muslim Frontier”, Idem. ed., *Muslims under Latine Rule, 1100-1300*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0).
- _____, “Frederick II and the Church: A Revisionist View”, *Catholic Historical Review*, 48(1963).
- Sciaccia, Giuseppe, “Sulla ‘Modernità’ di Federico II”, *Atti del convegno internazionale di studi federiciani* (Palermo: Renna, 1952).
- Weltecke, Dorothea, “Emperor Frederick II, ‘Sultan of Lucera,’ ‘Friend of the Muslims,’ Promoter of Cultural Transfer: Controversies and Suggestions”, Friedhelm Hoffmann, et al, eds., *Cultural Transfers in Dispute: Representations in Asia, Europe and the Arab World since the Middle Ages* (New York: Campus, 2011).
- Zutshi, Patrick, “Petitioners, Popes, Proctors: The Development of Curial Institutions, c. 1150-1250”, Giancarlo Andenna, ed., *Pensiero e sperimentazioni istituzionali nella ‘Societas Christiana’ (1046-1250)* (Milan: Vita e Pensiero, 2007).